

재정패널조사 테크니컬 리포트 제3호

재정패널 직업이력 부가조사 소개

재정패널DB사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1. 부가조사

재정패널조사는 2008년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단조사로, 조세정책과 행정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패널조사이다. 패널조사란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을 동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방법으로, 고정된 조사대상(패널)에게 일정한 주기마다 동일한 내용을 조사한다. 재정패널조사의 경우 1년을 주기로 1차년도에 표집된 가구를 원표본 패널로 삼아 해당가구의 소득·지출·복지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하는데, 이렇게 동일하게 조사하는 문항을 패널조사의 기본조사 문항이라고 한다.

기본조사 문항은 패널조사의 핵심이 되는 문항으로 변동 없이 조사되는 문항이다. 다만, 패널조사에서 기본조사 문항만 측정하는 것은 아닌데,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조사내용을 부가조사 문항이라고 하며, 패널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대부분 기본조사와 함께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가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목적은 기본조사 내용의 보완을 위해서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패널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조사방법이지만 한번 조사하고 종료되는 횡단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하는 문항이 늘어날수록 응답자들이 갖는 조사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조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된다. 따라서 기본조사의 경우 분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조사하기보다 조사목적에 맞는 주요 문항들을 우선하여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매 조사시점마다 측정할 필요가 없는 문항도 있기 때문에, 기본조사에서 누락되었거나 간헐적으로 조사해야하는 문항은 부가조사에 포함하여 기본조사의 내용을 보강하도록 설계한다. 그 예로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KLIPS) 직업이력 조사를 들 수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10차년도(2007년) 시점에 15세 이후 개인이 가졌던 모든 일자리 내용에 대하여 조사하여 누락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부가조사를 실시하는 두 번째 목적은 특정한 이슈를 조사하기 위해서이다. 동태적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기본조사 문항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보다 사회의 기본이 되는 현상을 측정하는 것에 더 큰 목적이 있다. 즉, 현재 사회적 관심사항 보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울러 정보를 수집할 의미가 있는 내용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시점에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이슈가 있다면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부가조사 문항으로 설계하여 조사한다. 재정패널조사(NaSTaB)에서 4차년도에 실시한 출산관련 정책 인식 조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의 복지인식 부가조사, 장애인 부가조사, 아동 부가조사가 그 예가 될 수 있겠다. 이렇듯 부가조사는 이용자들에게 기본조사를 보완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한 조사내용도 담고 있어 기본조사와 함께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조사이다.

재정패널조사는 4차년도와 6차년도 조사당시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부가조사를 진행하였다. 6차년도에 실시한 부가조사는 출산이력과 직업이력을 조사한 것인데, 출산이력 조사는 출산 관련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실시한 부가조사이며, 직업이력 조사는 기본조사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한 부가조사이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자하는 직업이력 부가조사의 경우 개인의 직업 정보에 대해 회상하여 응답하도록 한 부가조사로 개인의 노동시장 진입과 탈퇴의 과정에 대한 정보, 일자리의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부가조사이다. 덧붙여 기본조사에서 측정하는 경제활동 상태와 연계하여 분석 할 경우 부가조사 종료 이후에도 개인의 일자리 변화를 추적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활용도가 높은 조사 자료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분석에 있어 활용도가 높은 직업이력 부가조사의 내용과 분석방법을 소개하고, 기본조사 데이터와의 병합을 통해 산출된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직업이력 부가조사 자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직업이력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 직업이력 부가조사 내용 및 유의사항

가. 조사 내용

직업이력 부가조사의 조사대상은 2003~2013년 기간 동안 1개월 이상 지속된 소득활동을 한 가구원이다. 소득활동은 소득, 이익, 봉급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고용되거나 본인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주간에 1시간 이상 일을 한 것을 의미하며,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가족의 일을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한 무급가족종사자도 소득활동을 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조사내용은 10년간의 직업 현황과 은퇴 현황으로 구성된다. 직업 현황에서는 일자리 시작 시기와 끝난 시기를 연간 단위로 조사하며 현재까지 근무 중인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자세한 직업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사업 내용 및 주된 활동내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수, 종사상 지위, 근무시간 형태, 주당 평균 근로 일수 및 시간, 월평균 소득을 조사하였다. 직업 현황에 대한 문항은 기본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매년 측정하고 있는 문항으로 기본조사 문항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한 문항이다. 다만 직업이력 조사에서는 퇴직 사유를 추가하여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은퇴현황에서는 현재 은퇴상태인지, 은퇴상태가 아니라면 본인의 은퇴시점을 언제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현재 퇴직 중이며 구직 및 근로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을 은퇴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은퇴자로 정의 하였다.

<표 1> 2003 ~ 2013년 5월 직업이력 부가조사 내용

구분	조사 내용
2003~2013년 5월 직업 현황	- 일자리 시작 시기와 끝난 시기, 또는 계속 근무 여부 - 사업 내용(표준산업분류 21개 코드) - 직업 내용(표준직업분류 11개 코드) - 사업장 종사자 수 - 종사상 지위 - 근무시간 - 주당 평균 근로 시간 - 월평균 소득 - (퇴직자 대상) 퇴직사유
은퇴 현황	- 마지막 직장 은퇴 유무 - (비은퇴자 대상) 예상 은퇴 연령

나. 조사특성별 유의사항

1) 회상조사

직업이력 부가조사는 과거의 일을 회상하여 응답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이렇게 조사된 응답은 오류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거쳐 자료화 되는데, 이전 차수의 종단 조사에서 응답한 내용 중 직업이력 부가조사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의미의 문항이 있다면, 교차 검증을 통해 오류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의미로 조사된 문항 중에도 두 값이 모두 회상에 의한 응답이여서 어떤 것이 참 값인지 확인 할 수 없는 문항이 있다. 예를 들어 직업이력에서 측정한 2008년도 한 해 동안 다녔던 직장의 연간소득과 2차년도에 조사된 작년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이다. 두 값은 동일한 2008년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응답이지만 모두 회상에 의한 것으로, 참값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재정패널조사팀에서는 불일치 오류들은 최대한 점검하되, 참값을 확인 할 수 없는 불일치 오류들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지는 않았다. 만약 이를 수정한다면 한편으로는 종단 조사 데이터와 직업이력 부가조사 부가데이터의 일치를 기대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료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이 부분에 유의하여 자료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2) 조사 대상 기간

재정패널조사팀에서는 내·외부 연구진과의 논의 끝에 직업이력 부가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을 '과거 10년 동안'으로 설정하였다. 조사 대상 기간의 설정에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회상에 의존하여야 하는 조사의 특성상 응답자의 회상에 문제가 없으면서도 조사에 활용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전 생애에 걸친 직업이력을 조사한다면 조사에 활용 가능한 자료는 충분히 확보될 수 있겠으나 오래전에 근무한 일자리의 정보나 단기간 근무한 일자리 정보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고, 짧은 과거의 직업이력을 조사한다면 응답될 일자리의 수를 예측하기 어려워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렇듯 조사대상기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고, 충분한 논의 끝에 재정패널_조사팀에서는 10년을 응답자의 회상에 어려움이 없으며, 분석에 활용하기 적합한 기간이라고 판단하여 설정하였다.

따라서 직업이력 부가조사의 조사대상 기간은 2003년부터 6차년도 조사시점(2013년 5월)까지이다. 다만, 2003년 이전부터 조사대상기간까지 계속 근무 중이었던 일자리가 있다면, 그 일자리에 대해서는 모든 정보를 조사하고, 시작시기도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짜부터 기입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임금근로자로 일하였다면, 해당 일자리의 시작시기는 '2000년'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조사지침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사지침이 필요하다. 다양한 상황을 포괄하고 조사 대상자들의 응답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자료를 분석 할 때에도 조사의 지침을 정확히 이해하고 결과를 해석하여야 한다.

직업이력 부가조사의 가장 기본적인 조사지침은 조사대상자 선정 지침이다. 직업이력 부가조사에서는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이 조사대상이 된다. 그러나 모든 가구원이 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6차년도 조사 당시 6개월 이상 동거하여 가구원에 포함되는 사람 중 만15세 이상이며, 소득이 있거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한 이들 중에서도 과거 10년 동안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득이 발생한 사람들이 직업이력 부가조사의 최종 응답대상이 된다. 이런 응답자 선정 과정을 통해 직업이력 조사 대상이 된 사람은 총 6,234명이다.

두 번째 조사지침은 동시에 발생한 일자리에 대한 작성 지침이다. 사람에 따라 한 시기에 두_가지 이상의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재정패널 직업이력 부가조사에서는 두_가지 이상의 일자리 중 주된 일자리를 선택하여 한 시기에 하나의 일자리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된 일자리의 정의는 시간과 소득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일자리에 투입한 시간을 고려하여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한 일자리를 주된 일자리로 정의하고, 만약 동일한 시간을 투입하였다면 수입이 많은 일자리를 주된 일자리로 보아 기입하도록 한 것이다.

세 번째 조사지침은 고용 상황이 매번 변동하는 일자리 정보에 대한 작성 지침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이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무처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모든 일자리 정보를 기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전체 근로기간을 적고 근로시간이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근로기간의 평균값으로 기입하도록 지침을 주었다. 또한 동일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종사상 지위나 소득이 변경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런 경우 종사상지위는 일자리가 종료되기 직전 한 달을 기준으로 적고, 소득이나 근로시간 등은 근무 기간 동안의 평균값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주요 조사지침으로는 은퇴에 대한 정의이다. 은퇴는 많은 연구들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이지만, 은퇴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 다양하여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웠다. 다만, 재정패널조사의 직업이력 부가조사에서는 현재시점에서의 개인의 생각을 측정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현재 근로 및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생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으며, 찾을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를 은퇴상태로 판단하여 정의하였다.

3. 직업이력 부가조사 기초 분석

직업이력 부가조사 자료는 횡단 분석과 종단 분석이 모두 가능한 데이터로서, 기본조사 자료와의 병합을 통한 분석도 가능하다. 본 장에서는 직업이력 부가조사 데이터의 구조와 병합 방법을 설명하고, 기본조사 데이터와 연계하여 산출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가. 데이터 구조

직업이력 부가조사의 데이터는 'NaSTaB_JOB'라는 이름의 데이터 파일로 존재한다. 데이터는 개인을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으며, 기본적 구조는 <표 2>와 같다.

<표 2> 직업이력 부가조사 데이터 구조

변수명	PID	HID	PS06A19	PS06A20	P06GA000	P06GA001~110	P06GA200~201
설명	가구원 ID	가구 ID	조사차수	직업 응답개수	직업이력 조사대상자여부	일자리정보 01~10	은퇴
값			'6차년도'	'1~10개'	'예 또는 아니오'		

PID는 직업이력 부가조사 데이터의 주요 변수로 중복 값이 없는 가구원의 고유번호이다. HID는 모든 데이터에 존재하는 주요 변수인 가구고유번호로, 한 가구에서 2명 이상의 직업이력 응답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업이력 데이터에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PS06A19'는 생성변수로 직업이력 부가조사에 참여한 차수를 나타낸다. 이 변수와 함께 'P06GA000'을 통해서도 직업이력 응답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6차년도 기준, 가구원 설문지의 응답대상이 되는 사람 중 2003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총 6,234명이었다. 'P06GA001~110' 변수는 직업이력 부가조사 문항에 해당하며, 일자리의 시작시기와 끝난 시기, 직장의 기초정보, 근로시간 및 소득, 퇴직사유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한사람에게서 나타난 최대 일자리 개수는 10개였으며, 가장 과거에 시작된 일자리부터 현재의 일자리 순으로 1~10개의 일자리 정보가 존재한다. P06GA200~201 변수는 은퇴여부와 예상 은퇴 시점에 대한 변수이다.

나. 데이터 병합 방법

서로 다른 내용이 담긴 2개 이상의 데이터를 병합하기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에 연계를 위한 식별 변수가 존재해야한다. 재정패널조사 자료의 식별 변수는 HID와 PID로 어떤 데이터를 병합할 것인지에 따라 사용해야하는 식별 변수가 달라진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하는 직업이력 부가조사의 경우 개인의 고유번호인 PID가 식별변수가 되고, 기본조사의 내용을 포함하는 재정패널 가구데이터와 가구원데이터에서도 PID 변수를 병합시에 사용해야 한다. 한가지 더 주의할 것은 가구데이터와 가구원데이터의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이해하고 자료의 구조를 변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가구원 데이터의 경우 직업이력 부가조사 데이터와 같이 PID를 중심으로 개인들의 경제활동 및 소득 조사 자료가 정렬되어 있어 별도의 구조변환 없이 직업이력 데이터와 병합이 가능하다. 가구원 데이터의 구조는 아래의 <표 3>과 같은데, 6차년도를 기준으로 변수명을 살펴보면, PID 변수는 'PID06', HID 변수는 'HID06'으로 차수 정보를 변수명에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직업이력 데이터와 가구원 데이터를 병합하기 위해서는 PID 변수명을 동일하게 수정한 후 병합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구원 데이터에서 하나의 행(line)은 한명의 개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PID는 고유하게 나타나지만 HID는 중복 있기 때문에 병합시에는 반드시 PID 변수를 사용해야한다.

<표 3> 6차년도 가구원 데이터 구조

변수명	PID06	HID06	PS06A04	PS06A05	P0S6A01	P0S6A02	P0S6A18
설명	가구원 ID	가구 ID	가구원번호	본인응답 여부	현재 연령 만15세이상 여부	작년한해소득 유무	최초본조사 참여차수
값			'01'~'10'	'예 또는 아니오'	'예 또는 아니오'	'예 또는 아니오'	'01'~'06'

다음으로 직업이력 부가조사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인적사항 정보를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가구데이터와의 병합이 필요하다. 가구 데이터는 직업이력 데이터와 같이 PID를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지 않고, HID를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구조를 변경한 후 병합해야한다. 가구 데이터는 하나의 행(line)에 PID를 비롯한 가구원의 인적사항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6차년도를 기준으로 가구데이터의 구조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가구데이터의 시작은 HID('HID06')변수이다. 가구를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HID는 고유하게 나타나는 변수이고, 이후에는 그 가구에 포함되는 모든 가구원들의 인적사항 변수가

나타난다. ‘W06BYR01’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인적사항 변수인데, 변수명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해석하면, ‘W’는 인적사항, ‘06’은 차수를, ‘BYR’은 출생년도 변수임을, ‘01’은 1번 가구원을 뜻한다. 하나의 가구에 가구원은 총 9명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인적사항 변수는 동일한 변수가 ‘01’부터 ‘09’까지 존재한다. 직업이력 데이터와 병합하기 위한 PID 변수 또한 ‘HPID01’부터 ‘HPID09’까지로 존재하며, 가구 데이터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등장한다. HPID의 변수명에 있는 ‘01’부터 ‘09’는 차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몇 번 가구원인지를 표시하는 구분자임에 유의해야한다. 데이터 병합시에는 HPID 변수를 활용하여 PID 변수를 생성하고, 각 가구원들의 인적사항 정보를 PID를 기준으로 구조를 변환 한 뒤 정렬하여 직업이력 데이터와 병합하여야 한다. 구조변환과 데이터 병합에 대한 통계패키지별 설명은 재정패널조사 홈페이지의 ‘데이터 가공법’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표 4> 6차년도 가구 데이터 구조

변수명	HID06	...	W06BYR01	...	W06BYR09	...	HPID01	HPID02	HPID03	...	HPID09
설명	가구 ID		출생년도-가구원01		출생년도-가구원09		가구원 번호-01	가구원 번호-02	가구원 번호-03		가구원 번호-09

다. 기초 분석 결과

직업이력 부가조사의 기초 분석 결과는 다음 <표 5>과 같다. 먼저 직업이력 부가조사에 응답한 사람은 총 6,234명이였으며 남성이 61.3%, 여성이 38.7%으로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조사시점인 2013년을 기준으로 응답자들의 연령은 평균 47.4세였으며, 20대 이하가 9.3%로 가장 적고, 40대가 28.8%로 가장 많았다.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대졸 이상이 45.5%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과 중졸 이하는 각각 34.7%, 19.8%였다.

직업이력 응답자 중 가구주는 3,920명으로 62.9%였으며, 비가구주는 2,314명으로 37.1%였다. 전체 응답자들은 10년의 조사대상 기간 동안 최소 1개에서 최대 10개의 직업을 보유하고 있었다. 직업 응답 개수 별 분포를 살펴보면 1개의 직업을 응답한 사람은 4,531명(72.7%)으로 가장 많았으며, 2개의 일자리를 응답한 사람은 1,202명(19.3%)수준이였다. 3개 이상의 일자리를 응답한 사람은 501명(8.1%)으로 전체 응답자의 10%미만 수준이였다. 월평균 소득은 응답한 일자리 전체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는데, 월평균 약 250.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재 은퇴여부를 조사하는 문항에서는 전체의 6.1%는 은퇴한 상태라고 응답하였으며, 93.9%는 은퇴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비은퇴자들이 예상하는 은퇴 시점은 평균 63.8세로 최소 40세부터 최대 99세라는 응답이 나왔다.

<표 5> 직업이력 응답자 특성

(N=6,234명)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성	3,824	61.3
	여성	2,410	38.7
연령 (조사시점)	평균연령(중앙값)	47.4세(46세)	
	20대 이하	581	9.3
	30대	1,300	20.9
	40대	1,792	28.8
	50대	1,381	22.2
	60대 이상	1,180	18.9
최종 학력 (조사시점)	중졸이하	1,234	19.8
	고졸	2,162	34.7
	대졸이상	2,837	45.5
가구주와의 관계 (조사시점)	가구주	3,920	62.9
	비가구주	2,314	37.1
10년간 일자리 보유 개수	1개	4,531	72.7
	2개	1,202	19.3
	3개 이상	501	8.1
월평균 소득(중앙값)		250.7만원(191만원)	
은퇴 여부	예	381	6.1
	아니오	5,853	93.9
	예상 은퇴 연령(중앙값)	63.8세(65세)	
	최소 ~ 최대 은퇴 예상	40~99세	

본 자료를 이용하면 과거 10년간 일자리 변동이 없는 응답자와 이직을 경험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일자리 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10년의 기간 동안 1개의 일자리만 응답한 사람(4,531명) 2개 이상의 일자리를 응답한 사람(1,703명)을 추출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1개의 일자리를 응답한 집단과 2개의 일자리를 응답한 집단, 즉 이직의 횟수가 많은 집단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두 집단의 남성 비율을 비교해 보면 1개 일자리 응답자의 남성의 비율은 58.6%였으며, 2개 이상 일자리 응답자의 경우는 61.6%가 남성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았다. 연령은 일자리를 1개만 응답한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두 집단 간 약 4세의 차이를 보였다. 학력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의 일자리를 응답한 집단에서 대졸 이상 학력자가 47.8%로 1개 일자리를 응답한 집단(43.9%)보다 높았다. 가구주 여부를 살펴보면 2개 이상 일자리 응답자 집단에서 가구주의 분포가 4.7%p 정도 더 많았다. 10년의 기간 중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종사상 지위는 두 집단 모두 상용직 임금근로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한편 1개의 일자리를 응답한 집단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25.9%로 2개 이상의 일자리를 응답한 집단의 비율(20.1%)보다 높았다. 반면 임시직의 경우 2개 이상 일자리 응답자의 13.1%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1개 일자리 응답자(6.6%)보다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단, 임시직 임금근로자 중에 근무처가 매번 변동 될 가능성이 있는 공사현장 근로자 등은 하나의 일자리로 인정하도록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자리 변동은 포함

되지 않았다. 월평균 임금은 전체 일자리의 평균 임금을 산출하였는데, 1개 일자리를 응답한 집단의 월평균 소득이 256.0만원, 2개 이상 일자리를 응답한 집단은 219.9만원으로 두 집단 간 약 36만원의 소득 차이를 보였다.

<표 6> 일자리 보유 개수별 응답자 특성

특성			1개 일자리 응답자		2개 이상 일자리 응답자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전체			4,531명		1,703명	
성별	남성		2,657	58.6	1,049	61.6
	여성		1,874	41.4	654	38.4
연령 (조사시점)	평균연령(중앙값)		48.0세(46.0세)		43.8세(42.0세)	
		20대 이하	454	10.0	110	6.5
		30대	951	21.0	552	32.4
		40대	1,236	27.3	596	35.0
		50대	882	19.5	256	15.0
		60대 이상	1,007	22.2	189	11.1
최종 학력 (조사시점)	중졸이하		1,030	22.7	211	12.4
	고졸		1,512	33.4	678	39.9
	대졸이상		1,988	43.9	813	47.8
가구주와의 관계 (조사시점)	가구주		2,954	65.2	1,190	69.9
	비가구주		1,577	34.8	513	30.1
종사상지위	상용직 임금근로자		2,138	51.2	871	52.8
	임시직 임금근로자		277	6.6	216	13.1
	일용직 임금근로자		330	7.9	137	8.3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081	25.9	331	20.1
	고용원을 둔 사업주		157	3.8	70	4.2
	무급가족종사자		190	4.6	25	1.5
월평균 임금(중앙값)			256.0만원(200.0만원)		219.9만원(175.0만원)	

주1: 6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또 다른 횡단 분석방법 중 하나로 각 일자리가 시작된 년도와 끝난 년도에 대한 응답정보를 이용하여 각 일자리별 이행 기간, 즉 퇴사 후 이직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을 산출하였다. 분석 대상은 동일한 조건 유지를 위해 직업이력을 응답한 사람 중 퇴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2개 이상의 일자리를 응답한 경우)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데 평균 8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 이직 기간을 비교해 보면 남자의 경우 평균 6개월로 여자의 경우(1.1년)보다 약 6개월 더 빨리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별로는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경우 평균 1.1년 소요되었고 그 외 60대 이하의 경우는 1년 미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최종학력별 이행 기간 또한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직업이력 부가조사의 경우 일자리가 시작된 시점과 끝난 시점에 대한 응답을 월 단위가 아닌 연간 단위로 조사하기 때문에 과대 혹은 과소 추정의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한다.

<표 7> 퇴사 후 이직까지 걸리는 기간

단위(%)		평균 기간
퇴직 후 이직까지 걸리는 기간		0.8(년)
성별	남성	0.6
	여성	1.1
연령 (조사시점)	20대 이하	0.8
	30대	0.8
	40대	0.7
	50대	0.9
	60대 이상	1.0
최종 학력 (조사시점)	중졸이하	0.9
	고졸	0.7
	대졸이상	0.8

주1: 6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또한 각 일자리별 월평균 임금 응답값을 이용하여 직업 이행 시 월평균 임금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10년 동안 이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10년 동안 2개 이상 일자리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업 이행 시 월평균 임금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의 과반(54.0%)이 월평균 임금이 더 많은 곳으로 이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 임금이 더 작은 곳으로 이직 31.9%, 동일한 수준의 직장으로 옮긴 경우 14.1%순이였다.

<표 8> 퇴사 후 이직 시 월평균 임금 변화

단위(%)	월평균 임금 변화
감소	31.9
유지	14.1
증가	54.0

조사결과를 이용해 이직 시 직장의 사업장 규모 변화를 파악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이를 위해 10년간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응답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변동 시 사업장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 일자리가 1-4인의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한 응답자의 58.6%가 동일한 규모의 일자리로 이직하였다고 응답하여 좀 더 큰 규모의 사업장으로 일자리를 옮겼다고 응답한 경우(41.0%)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5-9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다가 이직하였을 때 사업장의 규모가 축소된 경우는 28.7%, 유지된 경우는 41.6%, 좀 더 큰 사업장에서 일하게 된 경우는 29.7%로 나타나 규모가 변동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반면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다 이직한 경우 그보다 소규모 사업장으로 이직한 응답자가 과반으로(50-299인 54.5%, 300인 이상 58.6%) 동일한 규모나 좀 더 큰 사업장으로 이직한 경우보다 조금 더 많았다. 공무원, 군인 교원은 이직하는 경우 22.7가 동일한 사업장으로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9> 퇴사 후 이직 시 일자리 사업장 규모(종사자 수) 변화

단위(%)		이직 후 일자리 사업장 규모						
		1-4인	5-9인	10-19인	20-49인	50-299인	300인 이상	공무원,군인,교원
이직 전 규모	1-4인	58.6	12.0	9.2	9.5	7.8	2.4	0.4
	5-9인	28.7	41.6	13.7	6.5	5.4	4.1	0.0
	10-19인	25.1	15.8	31.5	16.4	6.1	4.5	0.6
	20-49인	25.6	9.6	10.9	34.1	14.3	3.8	1.7
	50-299인	23.3	7.9	9.5	13.8	37.6	6.6	1.3
	300인 이상	22.4	7.6	6.7	7.6	14.3	40.5	1.0
	공무원,군인,교원	9.1	13.6	4.5	18.2	13.6	18.2	22.7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퇴사 후 이직 시 종사상 지위 변화도 추적 가능하다. 과거 10년동안 이직을 경험한 응답자의 직업 이행 시 종사상 지위 변화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동일한 종사상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용직 임금근로자 : 67.8%, 임시직 임금근로자 : 50.8%, 일용직 임금 근로자 : 47.4%) 반면, 비임금 근로자의 경우는 과반이 임금근로자로 종사상 지위가 변동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직 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일한 응답자 중 상용직 임금근로자로 이직한 경우는 36.5%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동일한 종사상 지위로 이동한 응답자(34.4%)보다 약 2.1%p 높은 수준이다.

<표 10> 퇴사 후 이직 시 종사상지위 변화

단위(%)		이직 후 종사상 지위					
		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직 임금근로자	일용직 임금근로자	고용원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을 둔 사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이직 전 종사상 지위	상용직 임금근로자	67.8	6.5	4.1	15.8	4.7	1.2
	임시직 임금근로자	30.1	50.8	7.1	8.4	1.6	1.9
	일용직 임금근로자	21.8	17.9	47.4	10.9	1.9	0.0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36.5	13.6	6.8	34.4	5.6	3.1
	고용원을 둔 사업주	37.0	14.0	7.0	24.0	16.0	2.0
	무급가족종사자	26.9	15.4	15.4	28.8	1.9	11.5

다음으로 직업이력 부가조사에서 측정하고 있는 은퇴여부 변수를 활용하여 조사시점 당시 은퇴자와 비은퇴자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은퇴자 중 남성은 53.2%, 여성은 46.8%였으며, 비은퇴자 중 남성은 60.1%, 여성은 39.9%로 은퇴자 집단의 여성 비율이 비은퇴자 집단에 비해 6.9%p 더 높았다. 은퇴자들의 평균연령은 66.5세로 10명 중 8명 가량이 60대 이상으로 대부분이였다. 또한 비은퇴자의 경우 60대 이상 응답자의 비율은 14.9%로 20대(9.3%) 보다 5.6%p 더 많은 것이 특징이다. 최종 학력을 통해 살펴본 은퇴자들의 교육수준은 중졸이하가 61.6%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과 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경우는 22.1%, 16.3% 순이었다. 반면, 비은퇴자들의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46.8%, 고졸이 36.4%, 중졸이하가 16.8%로 은퇴자

집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은퇴자 중 가구주의 비율은 68.5%였고, 비은퇴자 중 가구주의 비율은 66.6%로, 은퇴자 집단에서 가구주의 분포가 약간 더 많았다. 다음으로 2012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내 취업자 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은퇴자 가구의 52.3%는 취업자수가 '0'명인 상태였고, 취업자 수가 1명인 경우가 30.4%, 2명 이상인 경우가 17.3%였다. 반면, 비은퇴자 가구에서는 2명 이상의 취업자가 있는 경우가 53.7%, 1명인 경우가 45.4%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 가구원의 은퇴로 인해 가구 내 가구원의 취업가구원수가 줄어든 효과 외에도 은퇴 시점에 해당 가구원의 자녀들이 학업이나 취업으로 인한 분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해당 가구원이 속한 가구 소득 분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은퇴자 가구에서는 1분위에 속하는 가구가 42.5%, 2분위 23.3%, 3분위 13.8%, 4분위 12.2%, 5분위 8.2%로 1~2분위에 속하는 가구가 65.8%를 차지하는 반면, 비은퇴자 가구는 4~5분위는 25~28% 수준으로 분포하고, 2~3분위는 16~20% 수준으로 중상위 소득층의 분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은퇴자를 포함하는 가구의 연간 소비지출액은 약 1,279.4만원이었으며, 비은퇴자 가구의 경우 연간 2,970.5만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은퇴자 및 비은퇴자 특성

단위(%)			은퇴자	비은퇴자
성별	남성		53.2	60.1
	여성		46.8	39.9
연령	평균 연령(중앙값)		66.5세(69.0세)	45.5세(44.0세)
		20대	1.1	9.3
		30대	3.8	25.7
		40대	6.5	31.4
		50대	9.4	18.8
		60대 이상	79.3	14.9
교육수준	중졸이하		61.6	16.8
	고졸		22.1	36.4
	대졸이상		16.3	46.8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68.5	66.6
	비가구주		31.5	33.4
2012년 말 기준 가구내 취업자 수	0명		52.3	0.9
	1명		30.4	45.4
	2명 이상		17.3	53.7
연간가구소득	평균 소득금액(중앙값)		2,417.5만원(1,580.0만원)	4,763.4만원(4,000.0만원)
		1분위	42.5	9.7
		2분위	23.3	16.3
		3분위	13.8	20.4
		4분위	12.2	25.3
		5분위	8.2	28.3
가구 소비 지출(중앙값)			1,279.4만원(1,279.0만원)	2,970.5만원(2,995.4만원)

주1: 6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주2: 은퇴 여부의 조사시점(2013년 5월)과 가구내 취업자 수의 조사시점(2012년 말) 간에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함

또한 <표 11>에서 은퇴자의 남녀 비율의 격차(6.4%p)보다 비은퇴자의 경우 그 격차가 (20.2%p)좀 더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표 12>에서 비은퇴자의 연령대별 남녀 구성비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20대 비은퇴자의 경우 과반이 여성(58.3%)인 것으로 나타나 남성(41.7%)보다 16.6%p 많았다. 하지만 3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많았다. 특히 30대 비은퇴자의 64.7%가 남성으로 여성(35.3%)보다 29.4%p더 높아 다른 연령대 보다 그 격차가 가장 컸다. 전반적으로 비은퇴자의 남성의 비율이 더 높긴 하지만 연령별로 차이가 있으며 그 격차가 60대 이후 20%p미만(남성 : 58.5%, 여성 : 41.5%)으로 줄어든 것 또한 특징적이다.

<표 12> 비은퇴자의 연령대별 남녀 구성비

단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성별	남성	41.7	64.7	60.9	62.1	58.5
	여성	58.3	35.3	39.1	37.9	41.5

주: 6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그 외에도 <표 11>을 통해 은퇴자 집단에서 중졸이하의 학력을 보유한 사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학력별 은퇴의 연령 및 최종 일자리의 특성은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해 은퇴자를 추출한 후 최종 학력별로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진 은퇴자들의 마지막 일자리 종료 연령은 68.3세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고졸 58.8세, 대졸 이상의 경우 53.4세로 학력이 더 높을수록 마지막 일자리 종료 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은퇴자의 마지막 일자리의 종사자 수는 1-4인이 69.7%로 가장 많아 고졸이나 대졸 이상의 은퇴자 보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졸 이상의 경우 공무원·군인·교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8.5%로 고졸이하 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4.7%)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학력별로 마지막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대졸 이상의 은퇴자 절반 이상(63.6%)이 상용직 임금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되어 그 비율이 고졸 이하의 은퇴자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36.8%, 고용원을 둔 사업주 0.6%, 무급가족종사자 14.1%로 임금근로자보다 비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 전체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임금근로자의 경우 일할 수 있는 연령이 정해져 있는 반면 자영업자나 무급가족 종사자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비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많은 중졸 이하의 은퇴자의 마지막 일자리 종료 연령이 고졸 이상의 은퇴자보다 높게 나타났을 수 있다.

<표 13> 은퇴자의 학력별 마지막 일자리 특성

단위(%)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마지막 일자리 종료 평균 연령(중앙값)		68.3세(68.0세)	58.8세(61.0세)	53.4세(53.4세)
종사자 수	1-4인	69.7	32.8	28.4
	5-9인	9.6	14.9	13.0
	10-19인	7.2	10.7	3.4
	20-49인	7.4	16.5	13.3
	50-299인	2.9	12.0	20.7
	300인 이상	3.2	8.4	12.7
	공무원 군인 교원	0.0	4.7	8.5
종사상지위	상용직 임금근로자	15.2	47.7	63.6
	임시직 임금근로자	6.1	18.6	22.0
	일용직 임금근로자	27.2	5.7	0.0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36.8	20.4	11.4
	고용원을 둔 사업주	0.6	4.6	2.9
	무급가족종사자	14.1	3.0	0.1

주: 6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